

그림 · 육순호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조계종출판사

어린이와 함께 읽어요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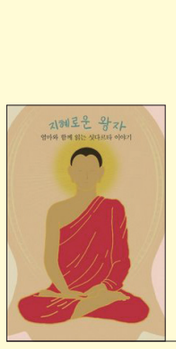


부처님이 된 왕자
헤더 산체 지음
타라 디 게수 그림
라다-수지 코우 옮김
담앤북스
1만3500원

평화롭고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싯다르타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궁전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렇지만 왕자는 궁전 밖 세상이 궁금했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마부 찬나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간 왕자님은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부처님이 된 왕자〉는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된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의 삶을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러스트로 만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깨달음, 이타심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읽는 싯다르타 이야기



지혜로운 왕자
김경빈 지음
시금치와 토끼풀 그림
효림
1만원

"엄마, 깨달음이 뭐예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깨달음'은 알 듯 모를 듯한 낯선 용어일 것입니다. 불교 전공자인 엄마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부처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린 싯다르타 왕자가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안내합니다. "나도 병이 든다면 저렇게 아프고 힘들까?" 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어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색감이 인상적인 그림책입니다.

나도 부처님이라고요?

동화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 지음
김승연 그림
운주사
1만6000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재밌는 동화 20편을 통해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내 친구 서영이' '부처님 만나던 날' '세 가지 보물' 등 창작 동화 15편과 '서동과 선화 공주' '선율 스님 이야기' '왜구를 물리친 피리' 등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재구성한 동화 5편이 실려 있습니다.

"동화는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의 영양제"라는 작가의 말처럼,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첫 번째 동화



연민의 씨앗
달라이 라마 지음
바오 루 그림
문태준 옮김
불광출판사
1만2000원

세계적인 불교 스승, 달라이 라마가 쓴 첫 번째 동화입니다.

두 살 때 14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받고, 네 살 때 부모님 곁을 떠나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텐진 갸초. 그에게 처음 '연민의 씨앗'을 심어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개구쟁이 소년이었던 달라이 라마는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물을 주고 보살펴 친절과 연민, 평화와 환경을 위한 커다란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는 배울 수만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문태준 시인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연등에 부처님 마음을 담아요

우리에겐 전통등 축제가 있어요



새봄이의 연등회
김평 지음
이광익 그림
불광출판사
1만1000원

1300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축제, 연등회(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중요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엄마와 아이가 연등회에 참가하기 위해 함께 등을 만들고 행진에 참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새봄이가 등을 만들고, 동자승과 놀고, 연등행렬에 참가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새봄이가 만든 연꽃등에는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뜻이, 코끼리등에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희망이, 사자등에는 용맹함과 지혜를 갖추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아이와 함께 만든 전통등을 들고 사찰에 가 보면 어떨까요?

연등을 밝히면 친구가 찾아올까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조민기 지음
육순호 그림
조계종출판사
1만2000원

불빛 일렁이는 지구별을 멀리서 바라보던 작은 별의 어린 왕자에게 찾아온 뜻밖의 손님 선재. 어린 왕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는 선재와 함께 지구를 방문합니다. 연등 꽃밭이 펼쳐진 거리에서 불빛의 정체를 알게 된 어린 왕자는 선재를 따라 코끼리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사천왕등의 커다랗고 무서운 얼굴을 조심스레 만져보기도 하며 연등축제를 즐깁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출간된 책으로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멀고 먼 곳에 사는 선재에게 닿았듯,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소망이 이뤄진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